

건설수요가 경기를 부양, 일부에서 사전수요도

~ 제조업의 악화가 계속, 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 소폭 개선 ~

(조사대상 2만 3,696사, 유효회답 9,901사, 회답율 41.8%,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2019년 9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45.0으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제조업 악화로 인하여 후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계속되는 반면, 왕성한 건설수요가 상승 요인이 되는 등 일부에서는 사전 수요도 나타났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소비 침체와 함께 수출감속 및 설비투자의 신중성 등의 우려 요소가 많아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 10개 업계 중 『소매』 『건설』 『서비스』 등 8개 업계가 개선, 『제조』 등 2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소매』를 중심으로 완만한 사전 수요가 나타난 한편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 침체 영향으로 『제조』는 악화가 계속되었다.
- 『토호쿠』 『미나미칸토』 『큐슈』 등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개선, 『키타칸토』와 『호쿠리쿠』 2개 지역은 악화되었다. 호텔 건설의 활성화 및 공공공사의 사전 집행이 호재가 된 한편, 중국경제의 감속 및 건설 투자 의욕의 부진과 함께, 태풍 15호로 인한 영향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 2019년 9월의 동향 : 후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 >

2019년 9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45.0으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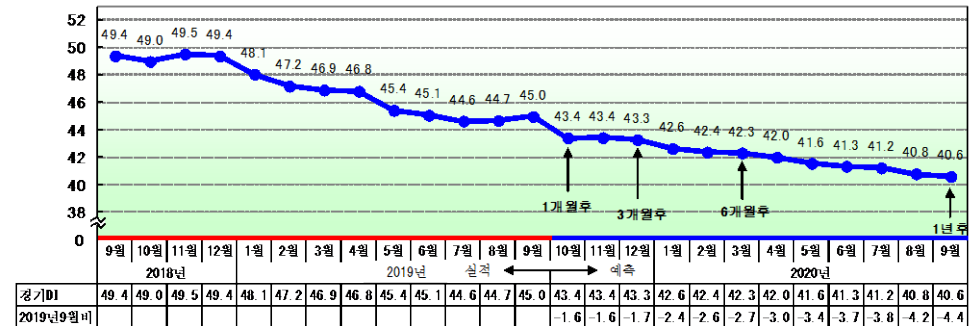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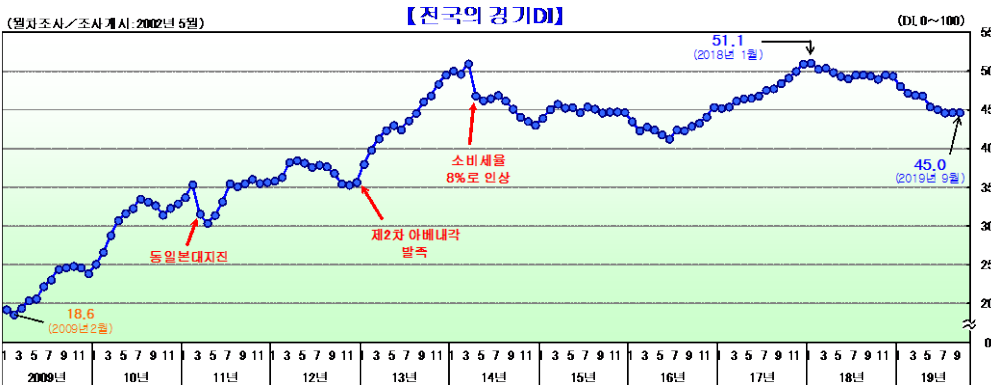
9월의 국내경기는 소비세율 인상을 다음달로 앞두고 완만한 사전 수요가 내구재 및 고가품에서 발생한 한편 경감세율 대응 수요도 호재가 되었다. 게다가 공공공사의 사전 집행 및 도쿄올림픽을 앞둔 건설투자에서 공사관련이 활발해졌다. 연료가격의 저하 및 러비 월드컵 일본대회의 개최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세계적인 자동차판매 및 반도체 관련 침체, 공작·산업기계의 수주 감소를 배경으로 제조업의 악화가 계속되었다. 심각한 인력부족이 부담 증가로 이어진 한편, 태풍 15호의 피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활동이 정체되었다.

국내경기는 제조업의 악화로 인하여 후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계속되는 반면, 왕성한 건설수요가 상승 요인이 되는 등 일부에서는 사전 수요도 나타났다.

< 향후의 전망 : 하향요인이 많아 불투명감이 강해져 >

향후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 침체가 최대의 우려요인이 될 것이다. 무역마찰을 배경으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감속과 더불어 인건비 및 연료비 등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일관계의 악화 및 세계적인 금융완화정책의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가 끼치는 영향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경제대책 및 도시부의 재개발, 도쿄올림픽, 생력화 투자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소비 침체와 함께 수출감속 및 설비투자의 신중성 등의 우려요소가 많아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동향을 미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